



담뽕뽕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

‘간이 맛고 재미있는 음식 영화제.’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간재미 영화제’가 24~26일까지 열린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6월 ‘영화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테마 영화제를 열고 있는 메이홀과 광주극장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바베트의 만찬’ 등 음식을 소재로 한 고전 영화부터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 등 미개봉 신작까지 모두 6편이 상영된다. 또 모히토 파티 등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광주극장에서는 모두 3편이 상영된다. ‘색계’, ‘라이프 오브 파이’ 등을 만든 이안 감독의 초기 걸작 ‘음식남녀’(24일 오후 7시20분)는 백여종이 넘는 환상적인 중국요리를 만날 수 있는 영화다.

1994년 칸영화제 감독 주간 출품작으로 호텔 주방장인 주사부가 세 딸 앞에서 새로운 결혼을 선언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오전련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반갑다.

음식 다큐멘터리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25일 오후 5시30분)은 ‘세계 최고의 식당 50’에서 단골 1위를 차지하는 코펜하겐의 ‘노마’를 이끄는 셰프 르네 레드제피의 삶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많은 영화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이누도 잇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6일 오후 3시20분)도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대학생 츠네오와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 조제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

메이홀
광주극장

‘간재미 영화제’

‘음식남녀’ ‘담뽕뽕’ 등
24~26일
상영

음식을 소재로 한
고전영화에서
신작까지 6편

쿠바 모히토 파티
맛집 ‘백수 간재미’서
특별 이벤트도

품으로 츠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 우에노 주리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생선구이와 계란말이는 조제의 일상과 감정이 묻어나는 음식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메이홀에서 3편의 영화 상영과 이벤트가 열린다.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잡식 가족의 딜레마’(25일 오후 5시)는 식재료가 아닌, 살아 숨쉬는 돼지의 일상을 지켜보며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1988년 아카데미외국어영화상을 수상

■ 간재미 영화제 일정

□광주극장 *상영시간은 오후임.	
24일 7:20	음식남녀
25일 5:30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
26일 3:20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이홀	
25일 5:00	잡식가족의 딜레마
26일 5:00	바베트의 만찬
7:00	담뽕뽕

한 덴마크 영화 ‘바베트의 만찬’(26일 오후 5시)은 음식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이자크 디네센 원작으로 프랑스 제일의 요리사 바베트가 생애 마지막 요리로 차려내는 특별한 만찬과 그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또 이타미 주조의 ‘담뽕뽕’(26일 오후 7시)은 라면 가게를 무대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이다. 최고의 라면을 만드는 비법을 배우려는 집념의 라면 가게 아주머니, 그를 돕는 카우보이 모자의 사나이 등이 등장한다.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 26일 오후 6시에는 쿠바 모히토 파티가 열리며 사직공원 가는 길에 위치한 광주 맛집 ‘백수 간재미’에서도 행사가 열린다.

광주극장(cafe.naver.com/cinemapwangju) 상영작은 8000원에, 메이홀(www.mayhall.co.kr)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광주극장 062-224-5858, 메이홀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가 박혜강 ‘제5의 숲’ 펴내

죽음과 맞선 사람들의 생존기

‘매천 황현 1:2’ 등 긴 호흡으로 역사와 관련한 장편소설을 써온 소설가 박혜강이 6년 만에 독자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 소설의 화두는 ‘죽음’. 생로병사의 여정에서 죽음과 맞선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룬 ‘제5의 숲’(문학)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치유의 손을 내미는 생명의 숲에 관한 이야기다.

작품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인 1979년과 1980년을 관통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5·18민중항쟁이 발발한 시대를 배경으로 암을 치유하고자 숲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소년의 눈을 통해 그려낸다.

이야기는 주인공이자 관찰자인 장영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제5의 숲에서 암을 치유하는 사람들



과 지내며 학문을 익힌다. 이 과정에서 장영우는 생의 벼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지난 6년 여 동안 큰 누님과 넷째누님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급격한 상실감에 빠졌다. 어느 봄날 찾은 숲에서 강렬한 느낌을 받고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광양 출신 박 작가는 1989년 무크지 ‘문학예술운동’ 제2집에 증편하고자 숲에 모인 사람들의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검은 노을’, ‘꽃잎처럼 1~5권’ 등을 펴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회대산장작가금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완도 보길도 세연정 인근에
윤선도 창작관·문학관 개원

윤선도의 문학정신이 살아 숨 쉬는 보길도에 문학인을 위한 창작실이 건립됐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고산 선생 유적지인 세연정 인근에 윤선도 창작관과 윤선도 문학관(사진)을 개원했다.

창작관과 문학관은 한 채의 전통 한옥에 각각 별채로 마련됐다. 창작관은 무료로 제공된다.

방 2개짜리(66㎡)와 1개짜리(39.6㎡) 등 2실로 돼 있어 2명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고 1년간 가능하고,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2실 모두 주방을 갖춰 스

로 요리도 가능하다. 한편 405㎡ 규모의 문학관은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실에서는 영상 등을 통해 고산 선생이 쓴 각종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35㎡ 크기의 세미나에서는 학술 세미나, 문학 모임 등을 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공식 개관과 함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할 문학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처는 완도군 문화체육과(061-550-5462).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송정공원에서 함께 영화 보실래요?”

24일 오후 8시 ‘즐거운 인생’

송정공원 문화제 두번째 이야기 ‘숲속 작은 영화관’이 오는 24일 오후 8시 금봉산근린체육시설에서 열린다.

함께 보는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즐거운 인생’(2007)이다. 장진영·김윤석(사진)·김상호 등 연기와 배우들이 출연하는 ‘즐거운 인생’은 대학 시절 함께 락밴드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20년만에 다시 뭉쳐 음악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야외 상영이라 돛자리, 먹거리, 모기 퇴치제 등을 준비해가면 좋다.

김지은·주진학·서선미씨 등 송정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열기 위해 만든 ‘송정공원 문화제 준비모임’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첫회 때는 ‘숲속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정갈한 진짬뽕 그리고 부산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